

# 감동·환호·갈채... 빛고을에 퍼지는 '구자범 바이러스'

### ■ 광주시향 상임지휘자 취임연주회 화제 만발



지난달 30일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린 광주 시향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는 광주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며 많은 화제를 낳았다.

지난 3월 광주시향 상임지휘자를 맡은 후 이날 첫 번째 정기연주회를 진행한 구자범 지휘자는 열정적인 지휘로 말려의 교향곡 1번 '거인'을 연주하며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전했다.

이날 공연을 습죽이고 지켜본 관객들은 때론 산들바람처럼, 때론 폭풍처럼 몰아치던 구자범 지휘자의 마지막 동작이 끝나자 열광적인 환호성을 지르며 기립박수를 쏟아냈다.

구 지휘자와 단원들은 관객들의 박수가 이어지자 스트라우스의 '천둥과 번개'를 앙코르 곡으로 선사했다. 관객들의 관람 태도 역시 청소년 관객이 주를 이루던 예전과 완전히 달랐다. 약장 사이에 박수를 치기도 했지만 많이 거슬리지 않았던 게 약장 약장마다 관객들의 물입도가 대단히 높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광주시향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티켓 전쟁을 치러야 할지도 모르겠다.

광주시향 공연이 매년 사례를 기록한 건 지난해 피아니스트 김정원 협연 공연에 이어 두 번째. 당시 공연은 '오빠부대'를 몰고 다니는 김씨의 영향력이 컸던 무대로 명실상부 광주시향의 티켓 파워로 매진을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50여 명은 객석 뒤에 서서 공연을 관람했다. 티켓 판매 금액 역시 1천300만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유료티켓 판매금액은 300만원 수준이었다.

티켓 가격을 올리고, 초대권 발행을 최소화했던 이번 공연은 이미 공연 3일전 티켓이 매진됐다. 일부에서는 구 지휘자의 '취임 연주회'라는 특수성이 작용한 터라 다음 공연부터는 조금 다르지 않겠느냐고 예상했지만 적어

도 이날 공연장을 다녀간 사람들은 광주시향의 고정 팬이 될 확률이 높다.

이날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는 많은 색다른 경험을 했다. 공연 시작 전에 무료 배부된 공연 팸플릿은 기관장 인사말과 장황한 지휘자·연주자 소개가 주를 이루던 기존 팸플릿과 사교의 장으로 변신했다. 여느 때와는 다소 생경한 모습이라 아쉽게도 이용자가 별로 많지는 않았지만 광주시향은 이 공간을 꾸준히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향예술단체 광주시향 인터넷 카페(daum.net/gjsym.orch)에도 관객들의 호평과 기대가 줄을 잇고 있다. 또 개인블로그에도 구 지휘자와 광주시향에 대한 글들이 대거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번 공연이 좋았다는 내용이 많지만 무엇보다 '앞으로도' 이런 공연을 지속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는 데 감격해 하는 글들이 많았다.

이날 연주는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구 지휘자의 아내와 부모, 배우 윤석화씨 등 구 지휘자의 가족과 지인들도 관람, 눈길을 끌었다.

2일 구자범 지휘자는 "이번 연주회는 제 취임연주회가 아니라 그냥 광주시향의 248회 정기연주회였다"며 "앞으로 광주시민들이 공연장을 찾아 맥주도 한 잔씩 하면서 더 잘 다가가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달라진 팸플렛·딱 찬 좌석·맥주도 한 잔...

## 감격한 관객들 "앞으로의 공연 기대 커요"

연을 관람했다. 티켓 판매 금액 역시 1천300만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유료티켓 판매금액은 300만원 수준이었다.

티켓 가격을 올리고, 초대권 발행을 최소화했던 이번 공연은 이미 공연 3일전 티켓이 매진됐다. 일부에서는 구 지휘자의 '취임 연주회'라는 특수성이 작용한 터라 다음 공연부터는 조금 다르지 않겠느냐고 예상했지만 적어

확연히 달랐다.

팸플릿은 이날 연주된 말려의 교향곡 '거인'의 미니 사전이었다. 음악적인 해설 뿐 아니라 철학적 해석까지 곁들여 차후 음반으로 '거인'을 들을 때 유용한 사전으로 활용할 만했다.

보통 공연 관계자들이 어울리던 리셉션장은 공연시작 전과 인터미션 시간에 관객들이 맥주, 와인, 주스 등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 제 54회 호남예술제 입상자

- |                |                  |
|----------------|------------------|
| 심사위원           | 60 이다솜(광주예술2)    |
| 서영화 교수 (조선대)   | 62 고성준(광주예술1)    |
| 이연경 교수 (청주교육대) | 84 김재관(전주예술3)    |
| 한정숙 교수 (호남신학대) | 89 정지은(광주여자3)    |
| 신수경 교수 (전남대)   | 146 최현정(전주기전여자3) |
| 황미경 교수 (순천대)   | ▲ 은상             |

### 피아노 중등부

- |                 |                   |
|-----------------|-------------------|
| ▲ 최고상           | 14 정성연(광주예술1)     |
| 21 백계훈(화순제일2)   | 17 김 별(광주예술2)     |
| ▲ 금상            | 39 손지영(광주예술2)     |
| 43 김하은(광주대성여자1) | 43 김정은(전주예술2)     |
| 46 조휘린(여천2)     | 52 송소현(조선대학교여자1)  |
| 56 이신호(광주지산3)   | 67 조영빈(전남예술1)     |
| 77 이소담(순천신흥3)   | 72 최한별(해룡2)       |
| 78 조효식(비야3)     | 77 김수인(전남예술2)     |
| ▲ 은상            | 87 김재경(문태3)       |
| 14 정은수(여수중앙여자1) | 92 박유경(전주예술3)     |
| 15 김민후(광양백운2)   | 104 김성경(전주예술3)    |
| 20 한미나(용봉2)     | 108 조상훈(순천매산3)    |
| 39 최가윤(일신2)     | 114 안소희(전주여자3)    |
| 40 이홍준(성덕1)     | 128 문영욱(대평여자3)    |
| 44 조아라(광주송원2)   | 132 김수민(של원여자3)   |
| 57 한원희(첨단3)     | 143 장지혜(목포현대인여자3) |
| 75 정주원(광산3)     | ▲ 동상              |
| 79 김승연(목포항도여자3) | 4 이하영(전남예술2)      |
| 91 정지연(영천3)     | 8 조민정(전남여자1)      |

- |                  |                   |
|------------------|-------------------|
| ▲ 동상             | 16 김유지(목포문태2)     |
| 5 이 현(송일2)       | 21 황지영(목포문태2)     |
| 10 조소영(화순제일2)    | 32 문성원(광주예술1)     |
| 11 김지현(광주2)      | 37 이은화(전주기전여자1)   |
| 18 김나영(봉선2)      | 42 김은지(광주경신여자2)   |
| 22 박효주(운암2)      | 56 김지인(광주예술2)     |
| 25 김승희(조선대학교여자2) | 64 김은민(광주예술1)     |
| 26 김경준(영암2)      | 66 김경혜(광주예술2)     |
| 32 이도윤(목포중앙여자2)  | 68 최아리(광주예술2)     |
| 36 박진형(성덕1)      | 73 김에스터(광주예술2)    |
| 53 이정일(광양1)      | 74 김영은(광주예술2)     |
| 65 김태영(금구3)      | 80 최아영(광주예술2)     |
| 71 박승준(광양백운3)    | 88 최 선(전주예술3)     |
| 74 최하빈(이리남성여자3)  | 90 김혜은(전주예술3)     |
| 76 김호현(전주아중3)    | 96 임현호(대성여자3)     |
| 81 이해빈(금당3)      | 112 이상아(여수중앙여자3)  |
| 90 이다선(광주동신여자3)  | 134 문수정(조선대학교여자3) |

### 피아노 고등부

- |               |                  |
|---------------|------------------|
| ▲ 금상          | 145 손아영(광주경신여자3) |
| 23 진다능(전주예술2) | 148 정지윤(무영여자3)   |

※ 최고상 수상자는 컬러인물 사진 2매를 5월 9일까지 본사 문화홍보국으로 제출바랍니다.

## “터키 관화의 세계로 오세요”

## “우리 시대 기독교 사회운동의 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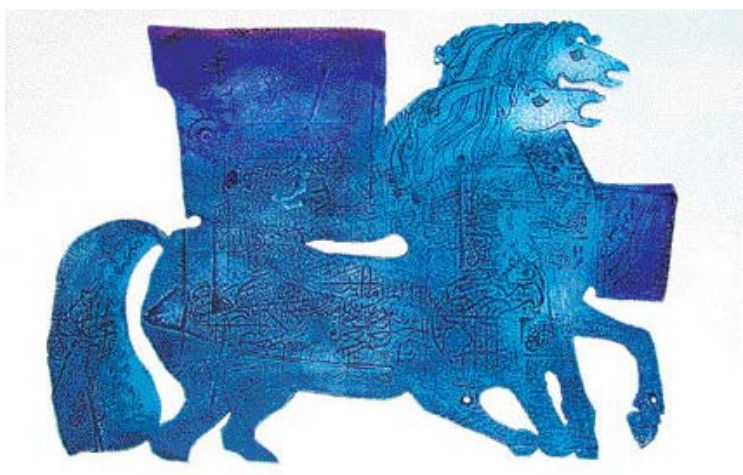
우제길미술관 24일까지

국제관화워크숍·전시회

우제길미술관은 오는 24일까지 터키 그래픽아트 이스탄불 미술관(I-MOGA) 슐레이만 사인 탁잔 관장을 초청, 국제관화워크숍과 전시회 등을 갖는다.

슐레이만 사인 탁잔 관장은 '방글라데시 아시아비엔날레' 오리지날 관화 대상, '터키 아시아-유럽비엔날레' 관화부분 우정과 평화의 상 등을 수상한 터키의 대표적인 작가이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오스만 제국 슐탄의 서명을 우아하고 아름다운 곡선으로 재해석한 '마(馬)와 능서(能書) 시리즈'를 선보인다.



‘마(馬)와 능서(能書)’

그의 작품은 언어학적 의미를 넘어 뛰어난 조형성을 획득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미술관은 오는 9일 오후 2시 탁

잔 관장을 초청해 작가와의 만남을 갖고, 그의 작품 세계를 소개한다. 문의 062-224-660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7일~6월 5일 광주YMCA

광주YMCA와 (사)오방기념사업회는 오는 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우리 시대 기독교 사회운동의 좌표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광주YMCA 2층 백제실에서 제2차 오방 아카데미 개최한다.

제2차 오방 아카데미는 '씨알 함석헌·다석 유영모·무위당 장일순·오방 최홍종의 생애와 사상을 돌아보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1차 오방 아카데미 이어, 지구 온난화와 세계 경제위기를 시대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 사회운동의 사상적 근거와 운동방향 및 실천적 과제를 탐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5월 7일 오후 7시 첫 강좌는 '호남



故 최홍준 선생

지역 초기 신앙인들의 삶과 사상(기독교 사회운동의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송기득 전 목동대 교수, 29일에는 '우리 시대 기독교 사회운동을 탐색한다'를 주제로 채수일 한신대 교수, 다음달 5일 '경제 위기 시대와 기독교 운동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장문재 이화여대 교수 등이 각각 주제를 달리해 강사로 나선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YMCA, 제2차 오방 아카데미

## 영화 '똥파리' 관객 10만 돌파

영화 '똥파리'(감독 양익준)가 독립극영화로는 처음 관객수 10만명을 돌파한다. 3일 배급사인 영화사 진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개봉한 '똥파리'는 2일까지 전국에서 9만8천612명

을 모았으며 개봉 18일 만인 3일 10만명을 넘어섰다.

'똥파리'는 지난달 29~30일 '박쥐', '엑스맨 울버린 : 탄생', '인사동 스퀘어' 등 신작들이 일제히 개봉되면서 상영관 수가 66개관에서 50개관으로 떨어졌고 상영 회차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선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도 여행 89,000원**

제주도 여행 89,000원

제주도 여행 89,000원

제주도 여행 89,000원

제주도 여행 89,000원

**IPALG 하이브리드 강화 특수방수 공법**

IPALG 하이브리드 강화 특수방수 공법

IPALG 하이브리드 강화 특수방수 공법

IPALG 하이브리드 강화 특수방수 공법

IPALG 하이브리드 강화 특수방수 공법